

오르비클래스(<https://class.orbi.kr/>)

1타 같은 N타

Zola 생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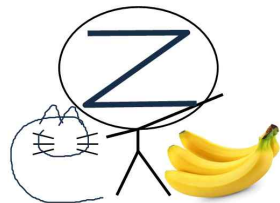
첫해~작년까지의

ebs 수특 문항

주제별 모음(2)

4~6단원

1. 개념 공부+기출 문제 풀이까지 끝낸 분들을 위한 용도임.
2.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진행해도 되고, 처음부터 주욱 봐도 되고, 킬러나 약점 주제 중심으로 봐도 됨. 님들이 알아서 하셈. 1번 풀고 버리면 됨.
3. Zola가 답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음. 틀리면 우선 자신을 의심할 것. 그리고 내용 확인할 것.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대부분은 Zola가 잘못된 것임. 그러니 반드시 이상한 것은 질문할 것. Zola는 오류가능한 존재임.
4. 자원 절약을 위해 1쪽 2면 인쇄 버전으로 설정하였음.
열공+즐공=대박!!!



■ 주제 목차 ■

Zola 생윤 1 - 개념의 모든 것		Zola(김준호) 선생님	
대단원	주제 번호	주제	백지 복습 정도
1	1-1	윤리학 구분	
	1-2	동양 윤리	
	1-3	서양 윤리	
	1-4	도덕적 추론	
	1-5	밀의 자유론	
2	2-1	죽음관	
	2-2	낙태,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2-3	성·사랑	
	2-4	가족 윤리	
3	3-1	직업 사상가	
	3-2	직업 윤리	
	3-3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3-4	정의 기본+아리스토텔레스	
	3-5	분배정의	
	3-6	소수자우대정책	
	3-7	교정정의	
	3-8	국가관	
	3-9	시민불복종	
4	4-1	과학기술과 윤리	
	4-2	정보윤리	
	4-3	환경윤리(서양의 자연관)	
	4-4	환경문제와 미래세대	
5	5-1	예술	
	5-2	의식주	
	5-3	다문화	
	5-4	종교	
6	6-1	소통 윤리	
	6-2	국제관계론	
	6-3	국제평화론	
	6-4	해외원조	
(넉넉하게) 최소 필요 장+a			

4-1

과학 기술과 윤리(수특 9강)

zola 풀이!

1[20 ebs 수특,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 【 보기 】
- ㄱ. 과학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 ㄴ. 과학 기술은 인간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는 도구일 뿐이다.
 - ㄷ. 과학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ㄹ. 과학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경우 인간은 과학 기술에 조종당할 수 있다.

2[13 ebs 수특 살짝 변형]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Zola는 Queen Banana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아내 쭈와 함께 지하 미궁(迷宮)에 감금된다. 그는 아내와 함께 밀랍으로 이어붙인 거대한 날개를 달아 탈출을 도모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날개짓이 점차 익숙해지자 쭈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더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날개의 힘을 과대평가한 쭈는 태양과 너무 가까운 곳까지 올라가 버렸다. 태양열에 의해 밀랍은 녹아내렸고 날개는 떨어졌으며 결국 쭈는 바다로 추락하여 죽고 말았다. 아내의 죽음에 Zola는 처음에는 슬퍼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삶과 죽음이 춘하추동(春夏秋冬)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고 신선(神仙)이 되었다.

- ① 과학 기술에 의한 문명의 발전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②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이성과 과학 기술의 진보를 신뢰해야 한다.
- ④ 과학 기술에 대한 낙관적 세계관을 확장해야 한다.
- ⑤ 과학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맹목적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3[개념 확인, ebs 활용]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0개~모두)

- [A] --- '에' ---> 복잡한 현상을 단순하고 일반적인 인과 법칙으로 환원시킨다.
- ① 생명현상을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② 체험되는 자연을 인간의 이성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 ③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단일한 것으로 축약할 수 있는가?
- ④ 구체적이고 생생한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하는가?
- ⑤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기계적 인과 관계로 설명가능한가?

4[17 ebs 수특]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본래 인간에게 구비된 이성은 어떤 적절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이성은 주관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즉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만을 유일한 가치 기준으로 삼는 기술적인 도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인간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고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이성이 이론적인 계산을 토대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을 제시하여 인간 및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도구화되어 버렸다.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font-size: small;"> 현대인들이 인간성을 회복하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div>  </div>

- ① 비판적 이성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 ② 실증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를 개선해야 합니다.
- ③ 쓸모 있는 것이 진리라는 사고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 ④ 가치 중립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⑤ 효율성과 계산 가능성의 원리를 토대로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5[19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중립적이다. 현대 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지배하고 있으나 인간의 정신적 각성을 통해 기술에 의해 초래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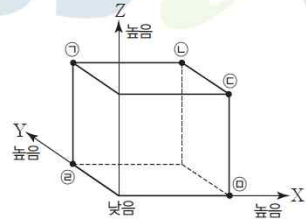
을: 기술은 단순한 인간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기술은 주어진 사물들을 생산, 가공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의 방식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의 본질 속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위험이 깃들어 있다. 현대 기술 문명의 시대에 우리는 기술을 통해 자연과 세계를 하나의 기술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기술의 대상으로 만들어 간다.

- 【 보기 】
- ㄱ. 갑은 기술이 인간의 존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본다.
 - ㄴ. 갑은 인간이 기술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 인격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 ㄷ. 을은 기술이 자연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현대 기술이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6[21 ebs 수특]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갖는 특징은?

갑: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 중립적이다.

을: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X: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정도
 Y: 기술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보는 정도
 Z: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성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하는 정도

7[22 ebs 수특] 한 사람을 고르면 됨!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이 아니며,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기술을 목적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여기는 기술에 관한 도구적 규정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본질을 올바르게 밝혀 주지 못한다. 우리가 이 점에 유의한다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완전히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탈은폐의 영역, 즉 진리의 영역이 그것이다. 탈은폐란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놓음'을 뜻하며, 기술이 사물을 탈은폐시킴으로써 사물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다.

진술	학생	갑	을	병	정	무
기술은 사물의 존재를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		√	√		√	
기술의 수단적 가치를 우선할 때 기술의 본질이 규명된다.				√	√	√
기술은 사물을 탈은폐시키는 가치 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		√		√		√
기술의 본질이 반영되지 못한 피상적 의미 규정을 지양해야 한다.			√		√	√

8[18 ebs 수특, 주관식] 제시문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대의 문제는 기술을 사회의 지배 원리로 떠받드는 데 있습니다. 기술은 이성을 사용하여 사물을 지배하고 정신적인 것조차 설명하고 질적인 것을 양적으로 환원시킬 뿐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새로운 도덕의 기준이 되고 기술이 도덕의 심판자가 되며 새로운 도덕의 창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 기술주의 문화에서는 기능적 사고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어 모든 가치 판단이 조작주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신앙의 위험은 과학 기술의 진보를 통하여 인류가 직면한 모든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보기>

- ㄱ. 과학적 지식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ㄴ.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은 인간 삶의 정신적 풍부함을 축소시킨다.
- ㄷ.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인간의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 ㄹ. 도덕규범의 가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사고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9[22 ebs 수특] 고르세요~

갑: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 탐구에서 과학 지식을 얻어 내는 '발견의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는 과학자의 개인적 요소는 물론이고 사회적, 문화적 요소도 개입되므로 과학 지식은 구성의 영역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을: 과학자들은 과학 지식 탐구에서 과학 지식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는 '정당화의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탐구를 통해 발견된 새로운 지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으로, 철저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보기

- ㄱ. 갑: 발견의 맥락은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 ㄴ. 갑: 새로운 지식의 발견은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될 수 있다.
- ㄷ. 을: 정당화의 맥락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다.
- ㄹ. 갑, 을: 과학 지식은 과학자들의 탐구의 산물로 가치 중립성을 지닌다.

4-2

정보 사회와 윤리(수특 10강)

zola 푸셈!

10[15 ebs 수특] 갑의 입장에 대해 을이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람들이 더 많이 사이버 정치 토론에 참여할수록 정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더 책임있는 정치를 구현하게 된다. 나아가 정치 과정에 직접적인 시민의 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을: 전자 민주주의는 플라톤이 우려했던 것처럼 대중에 의해 신중치 못한 정치적 결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터넷상의 '정보의 홍수'는 정치적 담론에 디딤돌이 되기보다 결립돌로 작용하는 '왜곡된 정보'를 양산할 것이다.

- ① 중우 정치가 지닌 위험성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정치에 시민 참여가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전자 민주주의가 지닌 단점을 과장하고 있다.
- ④ 시민이 지닌 합리적 선택 능력을 무시하고 있다.
- ⑤ 인터넷이 전자 민주주의를 촉진함을 모르고 있다.

11[18 ebs 수특]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현대 정보 사회는 '빅 브라더'가 통제하는 사회이거나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현대 정보 기술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통치자가 교묘한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고도의 감시 장치를 바탕으로 피감시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피감시자들은 항상 감시와 통제를 받는 피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보기>

-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 ㄴ. 정보 소통에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성을 추구한다.
- ㄷ. 정보의 생산·유통을 소수 집단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 ㄹ. 첨단 정보 기술 체계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20 ebs 수특]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플라톤의 “국가”에는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기게스는 우연히 금반지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 반지의 보석 부분을 밀어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위로 돌리면 다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는 이 반지를 이용하여 왕이 사는 곳으로 숨어들어가서 왕을 살해한 다음, 왕국을 장악한다. 이 이야기에서 기게스의 반지는 익명성을 상징하며,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게스는 익명성을 악용한 유형에 해당한다.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출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 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 ② 익명을 사용하여 낯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 ③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 ④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정치적 비판이나 내부 고발을 손쉽게 한다.
- 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도덕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된다.

12) [15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정보 복지 정책은 불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일부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 확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의 채택과 활용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되면서 정보 격차 현상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 인하와 편의성 증대 등으로 정보 격차 현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을: 정보 복지 정책은 필요합니다. 기술의 혁신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기술은 항상 가격이 비싸서 상류층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활용의 계층 간 격차는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은 기존의 정보 격차가 완화되기 전에 새로운 격차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술의 격차가 정보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빈부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약 계층을 위한 정보 복지 정책이 요구됩니다.

<보기>

- ㄱ. 정보 격차를 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가?
- 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을 정보 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는가?
- ㄷ. 정보 격차 현상의 해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반대하는가?
- ㄹ. 정보 격차 현상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하는가?

13) [19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사이버 공간은 확장될수록 점점 더 대중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점점 더 전 체주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중에게 보편적인 성격의 문화의 장(場)인 사이버 공간은 기준도 중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내용 없이 비어 있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사이버 공간은 상호 연결, 가상 공동체의 창조, 공동의 지적 자산의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의 창조의 장이 될 것이다.

을: 사이버 공간은 우리 시대의 사회적 산물이다. 사이버 공간은 자유로운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주로 인터넷 기술을 창조한 사람들과 이에 능숙한 사람들의 특정한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자본을 가진 기업은 기술의 변화에 개입하고 현실 세계와의 상호 작용보다는 기술의 활용에 집중하여, 사이버 공간은 자본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것이다.

- ① 갑은 사이버 공간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정보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
- ② 갑은 사이버 공간이 인간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이라고 본다.
- ③ 을은 사이버 공간의 기술은 모든 이용자의 필요를 평등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사이버 공간이 경제 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
- ⑤ 을은 갑과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로운 인간관계의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14) [19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기술의 발달은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정보의 이동을 수월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대인을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현대판 유목 물품들은 사람들을 장소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밤과 낮, 일터와 가정의 자연스러운 구분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일하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또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이동하며 디지털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력과 자본력을 지닌 소수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보 기술의 발달이 모든 사람을 노동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은 ㉠고 생각한다.

- ① 정보화 시대에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정보 기술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정보 기술의 발달이 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정보 기술이 삶의 편리성과 정보 이동의 신속성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⑤ 정보화 시대에 경제적 빈부 격차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15) [21 ebs 수특] 고르셈

○○ 신문 **칼럼** ○○○○년 ○월 ○일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 주는 반지를 얻은 기계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기계스는 이 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왕을 살해하여 왕국을 장악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해 주면, 익명성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사람들은 반지를 얻은 기계스처럼 자신의 욕심과 충동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

보기

- 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한다
- ㄴ. 범죄 행위에 대한 유혹이나 충동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 ㄷ. 자신의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 ㄹ. 행위를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수 있다

16)[22 ebs 수특] 고르셈!

1. 정보 사회에서 정부가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시민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보 사회가 일종의 판옵티콘이 되어 시민들을 가뒀 놓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정보 사회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은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고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시민들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함께 참여하여 힘을 합치는 시뮬티콘의 시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보 사회에서 현실의 정치 권력이 정보 통신 기술까지 장악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아닌 권력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어 시민 참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4. 제 입장에서 볼 때 당신의 주장은 옳고 옳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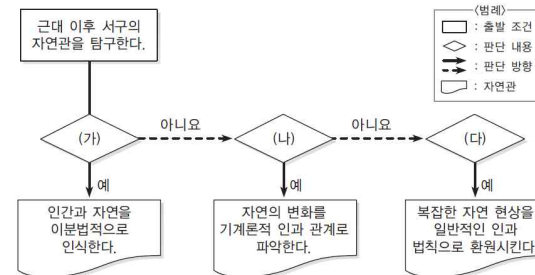
- ① 사이버 공간에서는 권력을 감시하기보다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기가 쉬움을 간과한다
- ② 정보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부 권력이 사이버 공간까지 통제력을 발휘하게 됨을 간과한다
- ③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민 협력이 강화되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④ 정부는 정치에서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을 장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⑤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의 증대가 권력의 부조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강조한다

4-3

환경과 윤리(수특 11강)

zola 푸썬! 바나나 조심하고!!

17)[14 ebs 수특 활용] 그림의 (가)~(다)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 ① (가) : 자연에는 내재적 가치가 존재하는가?
- ② (가) :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가?
- ③ (나) : 전체로서의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나) :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가?
- ⑤ (다) : 자연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재구성된 것인가?

18)[13 ebs 수특] 다음 사상이가 동의할 수 있는 진술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물질적 욕제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도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감각'이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가능하지 않다.

- ①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이다.
- ② 인간과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 ③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이성적 사고 능력은 도덕성의 성립 조건이다.
- ⑤ 도덕성은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경험은 이성과 무관하다.

19)[13 ebs 수특+14 ebs 수특] '칸트'가 긍정할 진술문을 있는 대로 고르셈.(0개~모두)

- ① 고통의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으므로 도덕적으로 평등하다.
- ② 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은 일이다.
- ③ 동물 학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 ④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가진다.
- ⑤ 유일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20)[15 ebs 수특 활용,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을: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하는 일, 자원의 고갈하는 일은 동료는 물론이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보충 없이도 우리의 생태적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나)

<보기>

- ㄱ. A: 생태계 보호를 위한 도덕 규범이 필요한가?
- ㄴ. B: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새로운 환경 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 ㄷ. C: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 ㄹ. D: 인간과 자연은 평등한 윤리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21)[18 ebs 수특,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무생물적 자연'을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이들은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 왔다. 철학은 도덕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즉, '죽은 것(무생물)'으로 간주해 왔던 지구도 사실은 일종의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구 그 자체를 직관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보기>

- ㄱ. 대지의 가치를 유용성의 측면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잘못이다.
- ㄴ. 자연 또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 ㄷ. 도덕적 무능력자는 그 자체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없다.
- ㄹ.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다.

22)[16 ebs 수특, 주관식] 갑, 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감정과 이성이 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들은 자연적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명지어졌기 때문이다.

을: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인간 안에서도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 소질이 점점 약화되어서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은 신이 인간과 동물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본다.
- ㄴ. 을은 인간이 동물에 대한 간접적 도덕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ㄷ. 갑, 을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동물을 비이성적 존재로 본다.

23)[16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갑: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기에게 일정량의 고통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소나 말에게 동일한 양의 고통을 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

<보기>

- ㄱ. A: 삶의 주체인 동물은 다른 동물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 ㄴ. B: 꿩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모든 동물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 ㄷ. B: 식용을 위해 공장식으로 길러지는 동물 사육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
- ㄹ. C: 인간의 고통은 동물이 느끼는 동일한 양의 고통보다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24[15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p>갑: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닌다.</p> <p>을: 인간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이라 하겠다.</p> <p>병: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나)	

<보기>

ㄱ. A: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이익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ㄴ. B: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ㄷ. C: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지녀야 한다.
 ㄹ. D: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자격을 지니는 존재이다.

25[16 ebs 수특]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내적 기능과 외적 활동들이 모두 목적 지향적으로 자신의 유기체적 존재를 지속시키려는 일관된 경향을 가지며, 그래서 그 종을 재생산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적응하도록 하는 생물학적 기능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을: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은 동물을 잘 길들여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을 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동물의 경우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① 생태계 자체나 무생물에도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②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체 간의 차등적 위계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③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④ 동물과 식물, 낮은 단계의 유기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⑤ 지각 능력이 없더라도 생명체라면 도구적 가치를 지님을 자각해야 한다.

26[16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소한 몇몇 포유류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지각과 기억을 하고 미래가 있음을 안다. 동물들 또한 자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이처럼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공동체 자체도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 고 생각한다.

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고 있다
 ②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③ 동물, 식물, 물, 토양을 포함하도록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님을 경시하고 있다
 ⑤ 개체보다 생태계 자체를 강조하면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27[17 ebs 수특 응용, 주관식] 다음 대화에서 학생들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할 때, A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센세: A 사상가에 대해 발표하데스까?
 학생 1: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데스.
 학생 2: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하데스.
 학생 3: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데스.

- <보기>
- ㄱ.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은 상호 의존적 체계의 일부이다.
 ㄴ. 인간은 생명체의 삶의 조건인 생태계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ㄷ.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ㄹ. 인간은 다른 유기체에 비하여 가치 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ㅁ.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8[20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골라!

‘큰 자아실현’이라는 규범은 기본적으로 쾌락적 기쁨을 추구하는 고립된 자아로 정의되는 근대 서구적 자아를 넘어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립되고 협소한 경쟁적 자아로 보지 않고 가족과 친구,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과 동일시할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큰 자아실현’은 거기에 더해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과의 일체화를 요구한다.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 번성하여, 결국 ‘큰 자아실현’의 맥락 안에서 자기 나름의 개별적인 삶을 전개하고 자아실현에 이르게 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직관은 생태권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와 모든 실체가 상호 연관된 전체의 부분들로서, 본래적 가치에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보기

ㄱ. 모든 유기체가 생명의 연결망 속에 본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ㄴ.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개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
 ㄷ.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존재는 평등한 도덕적 가치를 소유한다고 본다.
 ㄹ. 인간은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공생할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29)[19 ebs 수특]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단순한 생존은 식물도 지니고 있는 기능이고, 감각을 느끼며 움직이는 것은 동물도 지니고 있는 기능이다. 영혼의 이성적 능력만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은 스스로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능에 종속되기도 한다. 이성의 실현이라는 인간의 기능 실현이 다른 것들보다 상위의 목적이다.

을: 우리가 인간을 먹지 않는 것은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 때문이다. 즉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지 인간이 도덕 행위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뿐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몇몇 포유류는 자기의 삶을 사는 데 요구되는 자격을 지녔다. 따라서 그들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우해야 하며 우리의 자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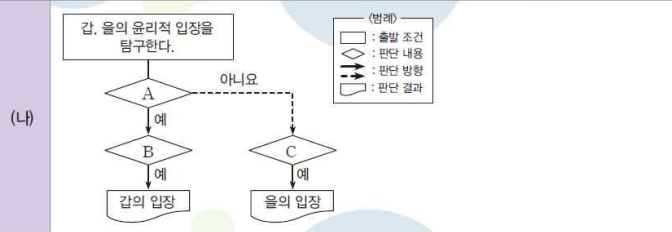
병: 우리는 갈가에 핀 꽃 한 송이도 무심히 따면 안 된다. 그것은 아무 이유도 없이 생명에 대해 과오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가치 있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괜찮다고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살아 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비로소 윤리적이다.

- ① 갑이 을에게: 식물은 감정이 없으므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② 을이 갑에게: 인간 이외의 존재가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 ③ 병이 갑에게: 다양한 종(種) 간의 도덕적 지위의 동등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갑이 을, 병에게: 동식물은 유용성에 따라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⑤ 병이 갑, 을에게: 생명 공동체의 존속이 개체의 복지보다 우선함을 모르고 있다.

30)[17 ebs 수특]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갑: 모든 생물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요청한다. 모든 도덕적 행위자는 생명체가 지닌 선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는 야생 동식물을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이해해야 한다.

을: 지구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복지와 번영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게 유용한가의 여부와는 별개이다. 지구 상 생명 형태들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하며, 따라서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다. 인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① A: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 ② B: 인간은 지구 생명 공동체의 상호 의존 체계에 구속되어 있는가?
- ③ B: 인간은 생명체의 조건인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개조하지 말아야 하는가?
- ④ C: 인간은 전인주의적 관점에서 자연을 파악해야 하는가?
- ⑤ C: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한가?

31)[18 ebs 수특]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한 학생의 질문 응답지이다. 응답이 모두 옳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	질문	응답	
		예	아니오
(1)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	V	
(2)	성장한 포유동물을 사냥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잘못인가?	V	
(3)	꽤 고 감수 능력은 동물의 이익 고려를 위한 충분한 조건인가?		V
(4)	㉠	V	

- ① 동물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②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③ 인간 이외의 성장한 포유동물을 도덕적 무능력자로 간주해야 하는가?
- ④ 인간과 동물의 이익의 합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위인가?
- ⑤ 삶의 주체는 감정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

32)[19 ebs 수특]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모든 존재는 자신의 본성적 기능과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런 의미에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물의 선은 성장에 필요한 영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물의 선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인간의 선은 생각하고 숙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을: 모든 실재는 정신과 육체라는 두 가지로 환원될 수 있다. 정신의 영역에는 사고, 감각, 의식이 포함되며 육체의 영역에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 물리적인 영역은 완전히 기계적이기 때문에 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동물과 식물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의식이 결핍된 존재이다.

병: 모든 생명체는 의식이 없든 없든 자기 보존과 행복을 향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단일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성장, 발전, 번식을 지향하는 존재는 고유한 선을 지닌다.

(나)

- ① A: 이성을 소유한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B: 이성의 소유 여부에 따라 생명체들 간에도 위계가 있다.
- ③ C: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④ D: 식물과 동물은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한 도구적 존재이다.
- ⑤ E: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본질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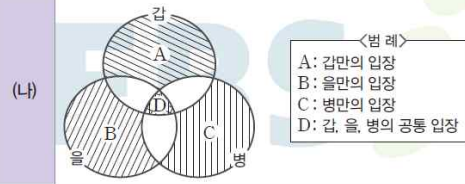
33)[21 ebs 수특] 갑, 을 사상가 중에서 한 명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동물을 잡아 길들여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량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동물의 경우 모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유용하다. 동물을 이용한 옷과 도구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을: 어떤 개체가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 ①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 ②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하는가?
- ③ 동물을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대우하는 것은 잘못인가?
- ④ 동물과 식물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⑤ 동물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34)[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갑: 하나의 존재는 개체적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자연과의 상호 연관 속에서 '큰 자아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볼 때 한 개체가 어떤 종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그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병: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외적 활동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고, 자신의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



- ① A: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② B: 유정성을 지닌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③ C: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내재적 가치가 있다.
- ④ C: 인간이 생태계를 개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D: 인간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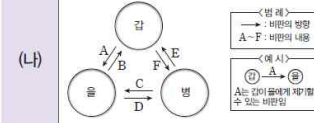
35)[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모두!!

갑: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증명될 수 있다. 우리는 자연적 물체들이 목적 때문에 작용하는 것을 본다. 자연적 사물들을 목적으로 질서 지어 주는 어떤 자성적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가) 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들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므로 단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유용성 여부로 삶의 주체인 동물의 가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병: 생명 외경 윤리는 인간이 동물에게 고통 대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만든다. 인간이 윤리적으로 되려면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돕는 필요성에 순응해야 한다.

보기
 ㄱ. A: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해악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ㄴ. B: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동등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ㄷ. C: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를 인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ㄹ. D: 비이성적 존재를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원리가 존재한다.

36)[22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힘이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을: 의식이 있던 없던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우리를 지도하는 대지 윤리는 하나의 생명 메커니즘으로서 대지 이미지의 존재를 전제한다. 대지는 단지 흙이 아니다. 대지는 태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 ① A, F: 인간 이외의 생명체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E: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한다.
- ④ C: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식을 대지까지 확장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D: 무생물은 이익 관심 없이 고유의 선을 지니는 존재임을 간과한다.

37)[22 ebs 수특] 틀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인간과 인간 아닌 모두의 건전한 이익을 해치고 모든 존재가 즐겁게 생존할 수 있는 잠재성을 훼손하는 더 이상의 파괴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 운동은 환경 윤리보다는 실재를 더 중시해야 한다. 생태적인 큰 자아를 통해 실재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적이고 미적으로 엄격한 환경 윤리를 따르게 될 것이다.

- ① 인간은 자기 자신과 생태계의 살아 있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다.
- ② 더 나은 삶의 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
- ③ 인간의 이익 증진과 자연 보호가 양립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 ④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유용성과는 무관하다.
- ⑤ 지구상 생명 형태들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38)[22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기존 윤리 이론의 전제와 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문제 상황들로 우리는 윤리적 공백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차원의 윤리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차원의 윤리학은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책임은 미래의 행위를 전망하는 의무로서의 책임, 미래 사태에 대한 책임이다.

- 보기
- ㄱ. 새로운 윤리학은 계약적 책임을 바탕으로 성립해야 한다.
 - ㄴ.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는 행위의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ㄷ. 책임의 대상을 인간뿐만 아니라 생태계까지 확장해야 한다.
 - ㄹ. 생명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5-1

예술과 윤리(수특 12강)

zola 문제

39)[19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을 위해 도모하려 하지 눈이 아름답게 여기는 것들, 귀가 즐거이 여기는 것들, 입이 달게 여기는 것들, 몸이 편히 여기는 것들을 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과 같은 것들은 백성들이 입고 먹는 재화를 축내고 빼앗기 때문에 어진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을: 인(仁)의 실질적인 내용은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이며 의(義)의 실질적인 내용은 손윗사람을 잘 따르는 것이다. 악(樂)의 실질적인 내용은 이 두 가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게 되면 샘솟듯 생겨나게 되고, 한번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만둘 수 없게 되고, 그만둘 수 없게 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을 구르고 손을 저으며 춤추게 될 것이다.

- 보기
- ㄱ. 갑은 통치자의 예술 활동이 백성의 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예술 활동이 사회와 분리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음악이 도덕적 행위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 ㄹ. 갑, 을은 음악이 천하를 다스리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본다.

40)[17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가는 실천에 의해 사회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 긍정하는 대신 부정과 파괴를 일삼는 예술은 나쁜 예술로 여겨져 왔다. 나쁜 예술은 일반적으로 '저속한 작품(kitsch)'이라 불리는 것이거나 '나쁜 취미(bad taste)'의 산물이다. 저급한 대중적 호소에 목적을 두는 예술은 순수한 예술 작품에 비해 감동과 울림이 뒤떨어진다. 나쁜 취미에 기초한 예술은 사회성이 배제된 개인적 유희의 산물로 개인과 사회를 타락의 길로 몰아갈 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중들은 번덕스럽고 오락적인 것을 좋아하며, 고급스러운 것을 원하기보다 저속하거나 나쁜 취미의 산물을 더 원한다. 따라서 예술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러한 대중들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고 생각한다.

- ① 예술가들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② 예술의 대중화가 작품의 질을 향상시킴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예술의 목적은 대중들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 ④ 예술은 대중들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예술의 대중화가 인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41)[16 ebs 수특, 주관식] 다음 관점에서 지지할 주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쾌락은 항상 대상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이해 관심(사적 욕구)과 무관한 자유로운 만족이다.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봄, 즉 관조함이 미적 판단을 순수하게 자유로울 수 있게 한다. 아름답다는 판단은 주관적이지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할 것으로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보기>
 ㄱ. 아름다움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ㄴ. 아름다움과 도덕성은 모두 이해 관심과 무관하다.
 ㄷ. 아름다움의 가치는 효용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ㄹ.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도덕적 목적을 추구한다.

42)[20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가: 예술가는 종교적 자각을 담은 감정의 전달에 주력해야 한다. 타인이 이 감정을 경험해 같은 심경에 감염되고 결합을 느낄 때, 이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예술이다. 따라서 감염성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술의 특징일 뿐 아니라, 그 정도는 예술의 가치를 재는 유일한 척도이다.
 을: 미(美)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할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게 된다.

나: <범례>
 A: 감만의 입장
 B: 감,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A: 예술은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해 존재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② B: 예술 작품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③ B: 예술 작품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 ④ C: 예술은 오로지 미(美)의 영역에만 관계되므로 선풍은 무관하다.
- ⑤ C: 예술은 독립적 영역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한다.

43)[21 ebs 수특] 틀린 것을 골라야 함.

갑: 음악이 종교에서 연주되어 군주와 신하, 아래위가 다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삼가지 않을 수 없고, 집안에서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듣는다면 부드럽게 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음악은 하나 되는 데를 살피며 부드럽게 조화로운 소리를 정하는 것이다.
 을: 임금과 대신들이 악기를 만들어 음악 연주를 일삼는다면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임금과 대신들이 큰 종을 두드리고 복을 치고 금(琴)과 슬(瑟)을 뜯고 우(芋)와 생(笙)을 불며 춤이나 추고 있다면 백성들은 입고 먹을 재물을 얻을 수가 없다.

- ① 갑은 음악이 예(禮)의 규범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음악이 백성들의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음악을 통해 예악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음악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음악의 가치를 백성들의 삶과 관련하여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44)[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낀다.
 을: 예술적인 것이란 그것의 실용적인 용도와는 상관없이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경이로운 디자인이나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 ① 갑은 도덕성과 상징 관계에 있는 미가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예술 자체의 형식이 아닌 예술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예술이 인간의 도덕적 삶을 고양할 때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④ 을은 예술을 외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미와 선의 판단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와 도덕을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본다.

45)[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요

예술을 상품화하는 문화 산업은 어떤 작품도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애써서 고쳐 놓고 작품과 감상자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자 열망한다. 그들은 생활과 예술 사이의 거리감을 수치스러운 것이므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가 예술을 일종의 소비재로 만드는 과정의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예술품에 대한 험값의 대량 판매는 예전에는 접근이 거부되었던 영역을 열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조건 아래에서는 교양의 상실과 야만적인 무질서를 증가시킬 뿐이다. 이처럼 문화를 생산과 판매의 대상으로 하는 문화 산업은 예술의 사용 가치를 교환 가치로 대체시키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의 발전을 방해하여 대중을 순종적인 집단으로 재조직한다.

- 보기
- ㄱ. 문화 산업으로 예술의 교환 가치적 특성은 악화되는가?
 - ㄴ. 대중 예술의 향유는 사람들의 정치적 각성을 방해하는가?
 - ㄷ. 문화 산업은 사람들을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로 만드는가?
 - ㄹ. 문화 산업은 예술을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가?

46)[22 ebs 수특, 주관식] 있는 대로 고르셈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인 생산물로 채워진다. 소비자가 직접 분류할 무엇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생산자들이 소비자를 위해 그러한 분류를 다 끝내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 유형의 인기 가요나 인기 배우, 영화들이 돌고 돌지만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오락물의 내용들도 겉보기에는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변화 없는 반복일 뿐이며, 세부 사항들만 대체 가능하다. 문화 산업은 그들의 소비자에 대해 자신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기만한다. 문화 산업은 자신이 행하는 기만이 욕구의 충족인 양 소비자를 설득하려 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문화 산업이 무엇을 제공하든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한다.

보기

- ㄱ.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시간에도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 ㄴ. 문화 산업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ㄷ. 문화 산업은 문화 생산물을 소량 생산하여 상품의 희소성을 높이려 한다.
- ㄹ. 문화 산업에서는 예술 작품이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비평은 사라지게 된다.

5-2

의식주와 사회 윤리(수특 13강)

zola 문제

47)[17 ebs 수특]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가) 갑: 옷과 장식을 같은 것들에 대한 사치와 허영은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들을 먹여살린다. 따라서 사색과 허풍의 바보같은 거만함은 먹고 입는 것에 번덕을 부리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악덕처럼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덕이 된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모두가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옷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 유토피아인들은 의복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절약하고, 작업복은 가족으로 할당하게 만들어 7년을 입는다. 의복에서의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탐욕을 악덕으로 여기고 검소와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갑, 을의 의복에 관한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판단 결과

보기

- ㄱ. A: 일상생활에서 의복의 필요와 가치를 인정하는가?
- ㄴ. B: 자존심과 허영심의 충족을 위한 의복 소비도 인정하는가?
- ㄷ. B: 동물에게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의복 소비를 지양해야 하는가?
- ㄹ. C: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의복 소비를 권장하는가?

48)[20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건축함은 그 자체가 이미 거주함이다. 건축함은 건물을 세우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죽을 자로서 매일 매일 거주한다는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달아 실존적 삶 전체를 돌보는 일체의 행위가 바로 건축함인 것이다. 죽을 자로서 인간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세계 안에 있음의 의미를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인간이 세계 내에 거주한다는 뜻은 다양한 건축함의 행위와 이를 더욱 더 가치 있고 본래적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함이 늘 함께 속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거주함은 인간의 사유함과 분리될 수 없는가?
- ② 거주함은 건축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가?
- ③ 건축함은 근원적으로 거주함의 의미를 지니는가?
- ④ 거주함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는가?
- ⑤ 거주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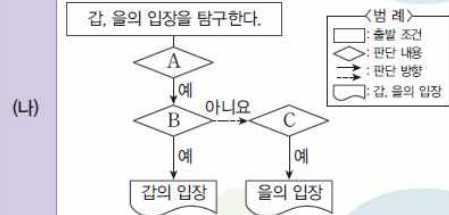
49)[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이 누가 되어라!

땅을 구원하는 가운데, 하늘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신적인 것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죽을 자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거주함은 이 사방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옴으로써 사방을 소중히 보살핀다. 그러나 사물들은 그것을 자신이 사물들로서 그것들의 본질 안에 초연히 내맡겨질 때에만 사방을 간직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죽을 자들이 성장하는 사물들을 돌보고 보호함으로써, 또한 성장하지 않는 사물들을 제대로 고유하게 견련함으로써 일어난다. ... (중략) ... 거주함의 본래적인 곤경은 주택이 모자란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죽을 자들이 거주함의 본질을 항상 다시금 구한다는 사실에, 즉 죽을 자들이 거주함을 비로소 배워야만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인간이 거주 본래적인 곤경을 아직도 바로 그 곤경으로서 숙고하지 않는다는 점에 인간의 고향 상실의 성립하고 있다면 어찌될 것인가? 고향 상실은 올바르게 숙고되고, 훌륭하게 간직된다면, 죽을 자들을 거주함 안으로 부르는 유일한 말 건넌이다.

입장	너
거주함은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살핌을 의미한다.	
거주함의 본래적 곤경은 집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사방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이다.	
현대인들은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50)[19 ebs 수특]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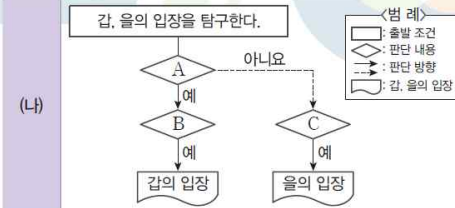
(가) 갑: 올바른 소비는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이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얻는 만족과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 소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예산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 지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역시 올바른 소비 방법의 한 예이다.
 을: 올바른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상품을 구입할 때 단지 그 상품 하나의 가격이나 품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정바구니 안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생태계나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소비이다.



- 보기
- ㄱ. A: 과시 소비와 모방 소비를 삼가는 것은 올바른 소비인가?
 - ㄴ. B: 올바른 소비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 ㄷ. C: 올바른 소비는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 ㄹ. C: 올바른 소비는 항상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얻는 것인가?

51)[21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요~

(가) 갑: 소비 행위를 할 때에는 자신의 경제력 안에서 최선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자 대비 산출 가치의 최대화'이다. 가장 적은 돈을 소비하여 가장 활용 가치가 큰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을: 인간의 경제 활동은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비 행위를 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인간과 동물, 환경을 착취하고 해를 끼치는 비윤리적 상품을 구매할 것이 아니라 윤리적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보기
- ㄱ. A: 자신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 ㄴ. A: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소비가 가장 바람직한가?
 - ㄷ. B: 개인의 선호보다 공공성을 상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 ㄹ. C: 상품 생산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소비를 해야 하는가?

52)[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모방이란 집단이 개인에게 행위 양식을 전수해 주고 선택의 고통과 선택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그 집단 내부에 개인의 존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현상이다. 유행은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다른 한편 유행은 차별화 욕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해 구분하고 변화하고 부각시키려는 경향을 만족시킨다. 이는 유행의 내용이 변화되면서 현재의 유행은 어제나 내일의 유행과 다른 개별적 특징을 갖게 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유행이 언제나 계층적으로 분화한다는 사실에도 인각한다. 상류층의 유행은 그보다 신분이 낮은 계층의 유행과 구분되고 낮은 신분의 계층에 의해 동화되는 순간 소멸된다는 사실도 이를 입증해 준다. 유행이란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삶의 형식들 중에서 특별한 것이다.

- ① 유행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의미한다.
- ② 유행은 개인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독립해서 발생한다.
- ③ 유행은 계층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④ 유행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의미한다.
- ⑤ 개인은 유행을 따름으로써 혼자자 아니라는 안도감을 갖는다.

53)[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이 공간에서 누리는 참다운 삶인 거주는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요구가 있다. 첫째 요구는 공간 내의 일정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단단히 토대를 다지고 안식을 주는 개인 공간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요구는 내부 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위험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위협적이고 위험한 외부 공간도 온전히 삶 속에 포함하고,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유일한 바탕인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이겨 낼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요구는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자기 집의 굳건함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극복하고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큰 공간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에 응할 때 인간은 공간에서 참된 거주를 실현하며 인간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

- ① 거주는 집 속에 공간을 점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 ② 거주는 공간 속의 임의의 위치에 우연히 머무르는 일시적인 체류이다.
- ③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로부터 안전한 영역을 가져야 한다.
- ④ 거주는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단절하고 집에 집착하여 머무르는 것이다.
- ⑤ 거주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참된 거주를 실현할 수 있다.

5-3

다문화와 사회 윤리 윤리(수특 13강)

zola 문제

54)[19 ebs 수특] 아래 두 문제를 푸세요!

갑: 어떤 사회에 통일된 문화가 없다면 구성 집단 간의 결속력을 기대할 수 없고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사회 내에서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 전통, 단일한 교육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비주류의 문화적 전통을 주류 문화 속에 녹여 넣고 소수자들이 다수자에 동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을: 사회에 다양성이 없으면 그 사회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소외되거나 억압되는 집단이 있다면 사회의 진정한 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주민들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 전통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동등하게 교육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들이 사회 속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3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갑은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의 단일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

ㄷ. 을은 사회 통합을 위해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 간 결속을 위해 주류 문화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4 다음 글의 입장에서 갑, 을 각각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의 주류 및 다수자의 우월성을 인정하되 비주류 및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오랜 역사를 공유한 주류 집단의 문화적 단일성과 자부심을 결속의 주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유입된 소수 집단의 문화는 기존의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갑에 대한 비판	을에 대한 비판
①	기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소수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 사회적 통합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②	기존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소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중심 문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③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중심 문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④	모든 문화가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면 집단 간 경쟁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엄격한 단일 문화주의는 오히려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⑤	단일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소수자의 문화를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수 집단을 동등하게 대우할 때 사회적 통합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55)[18 ebs 수특]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각 문화가 지니는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그 문화가 윤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즉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하겠지만, 윤리적 평가를 내릴 때에는 상대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힌두 공동체에서 행해지던,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서 죽어야 하는 관습인 사티(sati)와 같은 비인간적인 관습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을: 윤리도 문화의 일부이므로 문화가 상대적이면 윤리도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화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적·역사적 맥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각기 고유한 내적 논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문화에서 나타난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주체가 속한 특정 문화 체계의 잣대에 의거해서만 평가되어야 합니다.

갑: 나는 당신의 견해가 ㉠ 고 생각합니다.

- ㉠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정하기 어려움을 간과하고 있다
- ㉡ 각국마다 다양한 윤리적 기준이 존재할 수 있음을 경시하고 있다
- ㉢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국의 문화를 평가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
- ㉣ 문화적 특수성에 기초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이 필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 보편 윤리를 기준으로 문화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56)[15 ebs 수특, 주관식] (가), (나)의 관점에서 <사례>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 내릴 적절한 평가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커다랗고 동그란 샐러드 그릇 안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각자 고유한 맛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여러 민족의 문화가 동등함과 다양성을 지키면서 공존해야 합니다.

(나) 각 집단의 문화를 한데 모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가 갈등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 례>

우리나라도 국제 결혼과 이주 노동자들의 증가로 다문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 20명 가운데 1명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센터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주류 문화에의 동화를 위해 해당 여성들에 대한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예절 교실, 한국어 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 보 기 >

ㄱ. (가):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 수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

ㄴ. (가): 타자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 타자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일이다.

ㄷ. (나): 각각의 문화적 정체성의 대등한 강조로 소모적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

ㄹ. (나): 사회 구성원 다수가 따르는 문화를 제공하지 않아 윤리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57)[18 ebs 수특,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소수 집단의 언어, 문화, 종교 등의 문화적 차이가 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류 문화와의 동질화를 추구해야 한다.

을: 다양한 문화가 지니는 각기 다른 특성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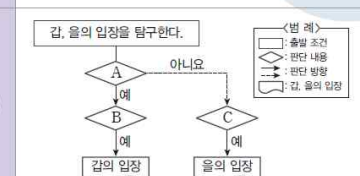
<보기>

- ㄱ. 갑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강조한다.
- ㄴ. 을은 다양한 문화의 이질성 보존을 지향한다.
- ㄷ. 갑은 동화주의를, 을은 다문화주의를 추구한다.
- ㄹ. 갑, 을은 모두 비주류 문화의 보존을 강조한다.

58)[20 ebs 수특]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 국가로 통합되는 정의로운 길을 보장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수 민족, 원주민, 이민자 등과 같은 여러 소수 집단의 존재에 대해 섬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 집단 스스로 문화적 고립에서 탈피해 자발적으로 국가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을: 소수 집단의 문화와 그 구성원들의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려는 다문화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특정 집단에게 국가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재분배의 체계에 혼동을 가져와 사회 통합의 기반인 민주적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나) 

- ㉠ A: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가?
- ㉡ B: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위배되는가?
- ㉢ B: 소수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 인정이 사회 통합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는가?
- ㉣ C: 모든 사람의 평등한 자유권의 보장보다 문화적 차이의 인정이 더 중요한가?
- ㉤ C: 소수 집단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훼손할 수 있는가?

59)[21 ebs 수특] 어떻게 푸는 지 알죠? 푸셈!

(가) 갑: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내듯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공존해야 한다.
 을: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포기하고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과 문화를 수용하여 이에 적응해야 한다.
 병: 문화 집단이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등한 입장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나)

- ① A, C: 문화 단일성을 전제로 문화 통합을 이루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F: 다양한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D: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는 위계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④ B, E: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한다.
- ⑤ D, F: 다양한 문화가 동등한 지위로 공존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60)[22 ebs 수특, 주관식] 골라!

(가) 갑: 각기 다른 재료들이 각자 고유의 맛을 지키면서도 하나의 샐러드가 되듯이 여러 민족의 문화가 평등하게 조화되어 다양함이 공존해야 한다.
 을: 국가가 주된 내용물이지만 고명이 첨가됨으로써 맛이 풍성해지듯이 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주류 문화와 공존해야 한다.
 병: 다양한 물질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듯이 다양한 소수 문화를 섞어 주류 문화 중심으로 융합하여 통일된 하나의 문화를 가져야 한다.

(나)

- 보기
- ㄱ. A: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정체성은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
 - ㄴ. B: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에 비주류 문화가 융합되어야 한다.
 - ㄷ. C: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에 위계가 존재함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 ㄹ. D: 단일한 문화를 전제로 비주류 문화를 부정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5-4

종교(수특 13강)

Zola Guide 잘 안 틀리기 때문에 방심하기 쉬움. 엘리아데는 기술 제시문을 문장 단위로 잘 공부해 둘 것. 함정 선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음.

zola 문제

61)[17 ebs 수특]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신은 선하며 완전한 지혜를 갖춘 존재입니다. 따라서 신이 우리에게 수많은 행위 중 어떤 행위를 명령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옳기 때문입니다. 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정직함이 속임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을: 아닙니다. 올바른 행위는 사회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옳은 행위가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신의 명령이기 때문이며, 신의 명령이라는 점을 제쳐 두면 정직은 선도 약도 아닙니다.

- ① 신의 명령과 윤리가 무관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② 신의 권위가 인간의 권위보다 우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신이 명령한 모든 행위가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신의 의지와 별개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신은 지혜를 활용해 옳은 행위만을 명령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62)[16 ebs 수특] 다음 사상이 가장 긍정할 내용을 있는 대로 몽땅 골라.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들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 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공존한다.
- ②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 ③ 인간은 체험을 통해 신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
- ④ 종교는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 ⑤ 종교는 세계의 근원과 의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63)[16 ebs 수특] (가)의 ㉠, ㉡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됨!

- (가) ㉠ -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나 양심에 기초한 윤리 규범으로,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강조한다.
 ㉡ - 종교의 교리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윤리 규범으로, 같은 종교 집단 내에서 강제력이 높다.

(나)

- <보기>
- ㄱ. A: 인간에게 올바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
 - ㄴ. B: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관심을 가진다.
 - ㄷ. B: 특정한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ㄹ. C: 윤리 규범의 근거를 주로 경전의 내용에서 찾는다.

64][16 ebs 수특]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창조물 가운데 한 부분을 이룬다. 따라서 인간은 신성성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며, 그의 생명은 우주적 생명과 일치하게 된다.
 을 : 무의식의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신을 창조했다. 유아기의 무력감과 압도적인 운명의 힘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며, 그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동경에서 종교적 욕구가 유래한 것이다.

- ① 갑 : 신성함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 모든 곳에서 발견된다.
- ② 갑 : 신은 불완전한 인간이 심리적 필요에 따라 창조한 것이다.
- ③ 을 :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이다.
- ④ 을 : 인간은 두려움의 감정을 통해 실존하는 신을 인식하게 된다.
- ⑤ 갑, 을 : 종교는 인간의 소망을 성취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65][19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정상인을 골라!

성스러움이 현현(顯現)함으로써 사물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데, 그러나 그 후에도 의연히 그 사물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후에도 우주적인 환경 세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도 의연히 한 개의 돌이다. 즉 겉으로 볼 때는 그 돌을 다른 일반적인 돌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돌이 성스러운 것으로서 계시되는 사람들에게는 눈앞의 돌의 현존이 초자연적 실재로 변한다. 바꿔 말하면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그때 우주는 전체가 성현(聖顯)이 되는 것이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신은 이 세계 그 자체이자 자연이다.	✓			✓	✓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든지 성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다.		✓		✓	✓	
성스러움이 계시된 자연물은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자연물이 아니다.	✓		✓		✓	
인간은 본래 종교적 존재이며, 이 세계는 생(聖)과 속(俗)이 공존한다.		✓	✓	✓		

66][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은 세계 안에서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 양식을 취한다.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한지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그림으로써 이 세계를 성화하고 또 그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성스러운 것, 절대적 실재가 있다고 항상 믿는다. 그는 생명이 성스러운 것에 기원을 가지며 인간 존재는 종교적인 정도에 따라, 즉 실재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모든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성을 거절하며 실재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심지어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비종교적 인간은 새로운 실존적 상황을 상정한다. 즉 그는 그 자신을 오로지 역사의 주체 및 동인으로만 간주하며 초월적인 것을 모두 거절한다.

- ① 종교적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절대적 실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
- ② 종교적 경험을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자연이 우주적 신성성으로 계시된다.
- ③ 비종교적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으며 성화된 사물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 ④ 종교적 인간은 신들의 행위를 모방하고 초월성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 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이 자연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67][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셈.

다른 종교와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종교적 소수 문제를 안고 있지 않은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새로운 총체 시각이 요구되고 있고, 새로운 길이 모색되어야 하며, 종교 사이의 새로운 개방, 운동 그리고 제휴가 시도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개별 인간, 교회 그리고 종교를 위해, 그리고 종교의 화해를 위해 모든 차원에 걸친 온갖 형태의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보기
 ㄱ. 세계의 평화를 위해 종교의 평화는 필수적이다.
 ㄴ. 종교 간 대화 없이는 종교 간 평화도 있을 수 없다.
 ㄷ. 단일 종교를 통해 종교 간의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ㄹ. 유일신을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6-1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 윤리(수특 14강)

zola 풀이!

68)[20 ebs 수특, 주관식]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 상황에서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님들은 코끼리를 설명할 때 제각기 편소리를 한다. 어느 장님도 코끼리의 진면목을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장님도 코끼리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성(佛性)을 설명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어느 입장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모든 입장을 떠나서도 안 된다. • 불교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의 한 맛[一味]으로 돌아가게 하고, 부처의 뜻이 지극히 공정함[至公]을 전개하여 백가(百家)의 못 주장을 화회(和會)시킨다.
(나)	오늘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다 보니 다양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각각 자신의 관점과 주장은 옳고 타자의 관점과 주장은 틀렸다고 말한다. 때로는 상대에 대하여 부분적인 공정을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내세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기

- ㄱ. 자신이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 ㄴ. 서로 다른 의견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ㄷ.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나 설명이 완전하지 못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ㄹ. 부분에 대한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합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69)[14 ebs 수특, 윤사 활용, 주관식] 다음은 어떤 사상가의 기본 관점과 주장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

기본관점	같은 속에 이미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이미 같음이 투입되어 있기에 독립적 실체는 없고 거울처럼 각자가 다른 것을 반조(返照)할 뿐이다.
주장	더러움과 깨끗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에서 둘[二]이 아니고, 진실됨과 망령됨의 이문(二門)도 다를 수가 없다. 고로 일(-)이라고 한다. 일이라 함은 이처(二處)가 없고, 모든 법의 진실이 있는 것이며, 허공과 같지 않고 그 본성이 스스로 신통한 이해력을 지니고 있기에 마음[心]이라 이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둘이 없는데 어찌 하나[一]가 있을 수 있는가? 일(-)도 없는데 누가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분석	(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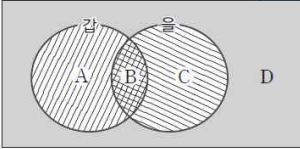
- ㄱ. 서로 다른 것을 극복하여 하나로 동일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ㄴ. 모든 경론(經論)의 근원인 일심(一心)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ㄷ. 화쟁(和諍)을 위해 다름과 같음을 대립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ㄹ. 참과 거짓과 같은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할 경지를 주장하고 있다.

70)[16-7교-3+18-7교-6+15 ebs 수특 윤사, 주관식] 밑줄 친 '그'의 사상적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그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네 가지 유형의 타당성 요구를 전제한다. 첫째는 화자가 발언한 것이 이해 가능한가라는 '이해 가능성'의 요구인데, 이것은 나머지 세 가지 타당성 요구의 기본 전제이다. 둘째는 그 발언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내용이 참인가라는 진술의 '진리성' 요구이고, 셋째는 화자의 규범적 발언이 승인된 규범적 맥락 속에서 정당한가라는 언어 행위의 '정당성'의 요구이다. 넷째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진실한가라는 표현의 '진실성'의 요구이다.

- ① 다원화 시대에 보편타당한 규범의 확립은 가능하지 않다.
- ② 행위 규범은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 ③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특성을 모른다고 가정된다.
- ④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예상되는 규범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⑤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표현하는 주장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 ⑥ 개인적인 욕구, 희망 사항을 제외하고 발언해야 한다.
- ⑦ 공론장에서는 타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71)[20 ebs 수특, 주관식] (가)의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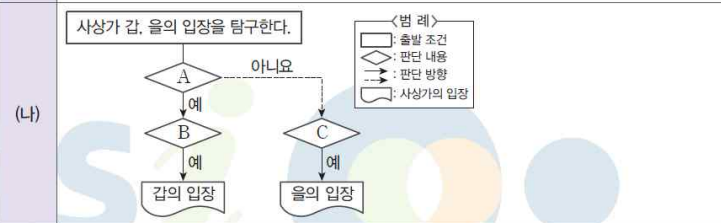
(가)	<p>갑: 나는 논증 규칙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는 보편화의 원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적 표현을 제안 하였다.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개인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미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들이 모든 당사자들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p> <p>을: 나의 준칙이 하나의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나 또한 비할 수 있도록 오직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으로 어려움을 빠져나오라'는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내가 기꺼이 용납할 것인가?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려고 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하라'가 보편적 법칙이 되게 하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곧 깨닫는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 갑, 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개인의 도덕 판단만으로는 타당한 규범의 성립이 어려우므로 담론이 필요하다.
- ㄴ. B: 대화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한 규범은 모두 보편타당하다.
- ㄷ. C: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과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
- ㄹ. D: 모든 타당한 도덕규범은 이성적 존재자들에게 보편화될 수 있다.

72)[22 ebs 수특, 주관식] 고르세용~

(가) 갑: 실천적 담론에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 타당 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의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 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감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을: 명령은 법적 외에 오로지 이 법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준칙의 필연성만을 함유하지만, 법칙은 그 것이 제한받았던 아무런 조건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이 법칙의 일반의 보 편성뿐이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 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 하라.'는 것이다.



- 보기
- ㄱ. A: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서 보편타당한 규범을 도출해야 하는가?
 - ㄴ. B: 의사소통의 합리성이 실현되어야만 정당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
 - ㄷ. B: 대화 참여자들은 개인의 욕구를 배제한 채 진실하게 입장을 말해야 하는가?
 - ㄹ. C: 도덕 법칙은 누구나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 명령인가?

73)[21 ebs 수특, 주관식] 다 고르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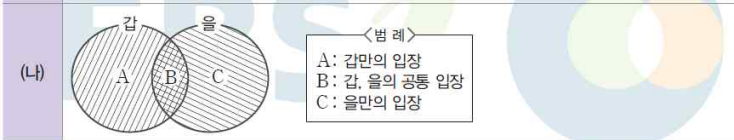
담화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이해의 극복과 이성적으로 동기 지워진 신뢰라는 공통성 덕분에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은 참여자들을 서로 결합합니다. 즉 담화의 참여자들은 서로 논증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쌍방이 진실한 자기표현을 하고 있다고 확인해야 하며, 또한 공동으로 진리를 추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기
- ㄱ. 담론 참여자는 상대의 이해(理解)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ㄴ. 시민 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규범만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 ㄷ. 정당한 담론의 결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
 - ㄹ. 분화되고 복잡화된 현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담론에는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야 한다.

74)[21 ebs 수특] 고르셈.

(가) 갑: 군자는 올바른 도로로 일을 할 때 기뻐하며,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고 화합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소인은 올바른 도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누구하고나 쉽게 같이 지지만 화합하지 못한다.
 을: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남의 눈치만 본다.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게 된다. 그래서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그런 것을 자연에 비추어 생각하는 것이다.



- ① A: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한다.
- ② A: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 ③ B: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도덕적 원칙을 버려야 한다.
- ④ B: 일체의 분별과 차별이 없는 소요유(逍遙游)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⑤ C: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인(仁)을 실현해야 한다.

75)[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한마음의 근원은 있고 없음을 떠나서 홀로 깨닫는다. 그리고 불법(佛法)의 바다는 진속(眞俗)을 아우르며 고요하다. 돌을 아물렸어도 하나가 아니고 홀로 깨닫는다. 하나가 아니면 돌을 아물렸으니, 참된 것이 아니라 하여 세속적인 것이 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해서 참된 것이 되지도 않는다.

(사례)
 A는 마을의 개발 사업을 두고 사업 추진을 주장하는 마을 사람들과 이에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이 심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다수의 의사를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하세요.
- ② 시비(是非)를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따라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③ 각자가 지닌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 포용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 ④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화와 화해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세요.
- 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고 마을에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수특 15강)

☛ Zola Guide 국제관계론의 구성주의와 국제분쟁(현턴턴과 월러의 견해)은 교과서에는 있으나 올해 ebs 수특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2차 생원(17학년도~20학년도) 시절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zola 풀이!

76)[13 ebs 수특] 밑줄 친 ㉠에 근거한 판단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편적인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국가 지도자들은 인류 전체에 대한 관심과 경애, 더 넓은 이익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도덕성에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덕목이 아니라 ㉠정치적인 필요성과 신중성에 따르는 다른 종류의 도덕성을 배워야 한다.

- ① 국제 사회는 하나의 인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
- ② 국제 관계의 구조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 ③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국가 이익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외교 정책이 옳은 정책이다.
- 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77)[14 ebs 수특] 다음 관점에 부합하는 주장에만 모두 'V'를 표시한 학생은?

국제 정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혼돈 상태의 국제 사회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다른 국가보다 우월한 힘을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국제 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			√	√
이기적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는 이기적이다.		√	√		√	
국가들 간에 호혜적 대화와 평화가 가능하다.			√	√		√
국제기구, 국제법 등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	√	√

78)[14 ebs 수특]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

갑 : 국가 이익 그 자체가 도덕적인 것이다. 국가 이익은 그 자체로서 다른 모든 도덕적 고려를 압도할 힘과 설득력을 지니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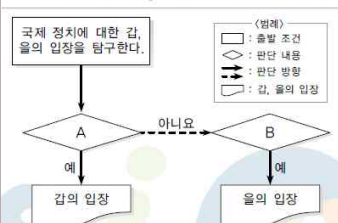
을 : 인간은 이성적이며 이성적 인간으로 구성된 국가도 국제 사회에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국가 간의 전쟁은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도덕을 일치시키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 조건이다.

<보기>

- ㄱ. 국제적 갈등은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가?
- ㄴ. 국제 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달성되는가?
- ㄷ.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 ㄹ. 국제 사회는 무질서와 혼돈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가?

79)[15 ebs 수특]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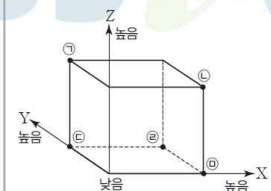
(가) 갑 : 국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은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국제 정치에 있어 정치적 현상은 다음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을 : 평화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규제하는 국제적 제도의 창출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 안보는 세력 균형이 아니라 힘을 가진 국제기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나) 

- ① A : 국제 사회에서의 평화 실현은 불가능한가?
- ② A : 국제 사회는 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 ③ A : 국가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가?
- ④ B :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 ⑤ B : 국제 평화를 위해 모든 전쟁을 포기해야 하는가?

80)[21 ebs 수특]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고르셈.

갑 : 국제 정치는 국가 간의 지속적인 권력 투쟁과 갈등의 연속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정치는 권력과 강압으로 구성된 인간 행위의 영역이므로, 국가는 자기 이익과 생존을 추구한다. 또한 국가는 무정부 상태인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므로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
 을 : 국제 정치는 국가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정치 활동에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다. 세계 평화는 이와 같은 상호 협력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가능하며, 국가들은 이러한 규범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X: 윤리를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
 Y: 힘의 균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Z: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정도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ㄹ

81)[22 ebs 수특] 가장 적절한 것은?

특별한 사회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국제 무대에서의 권력 투쟁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일 뿐이라는 주장을 부정하는 결정적 논거는 국내 정치의 본질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제 정치의 본질은 국내 정치의 그것과 일치합니다. 다만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벌어지는 국내적·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특히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은 가족을 위시해서 친목 단체와 전문 조직체 그리고 지방 정치 기구와 민주 국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모인 모든 결합체에서 관찰되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권력 서열을 형성하려는 시도를 물리치고 기존 권력 서열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라도 현상 유지 정책과 제국주의 정책 사이의 갈 등이 그러한 식으로 생겨납니다.



- ①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 ②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③ 국제 정치에서의 권력 투쟁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 ④ 모든 사회적 관계는 배려와 상호 존중을 통해 유지된다.
- ⑤ 민주 국가의 정치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권력의 평등한 분배이다.

82)[22 ebs 수특, 주관식] 모두 고르셈.

(가) 인간의 본능은 힘과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욕망을 제어할 국제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국은 이런 정글과 같은 냉엄한 국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존을 최대의 국익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고, 오직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나쁜 행동은 인간의 주어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게 만드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잘못된 제도나 구조의 문제는 국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보기
- ㄱ. (가): 국내 사회의 공권력과 같은 합법적인 힘이 국제 사회에도 존재한다.
 - ㄴ. (가): 다른 나라의 도덕성에 호소해서 자국의 생존을 보장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 ㄷ. (나): 국제 사회 분쟁의 주요 원인에는 국가 간 오해나 국제적 제도의 미비가 있다.
 - ㄹ. (가), (나): 국가 간의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한다.

6-3

국제평화(수특 15강)

zola 풀어라!!

83)[20 ebs 수특, 주관식] 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갑: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환대(歡待)란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그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이 영속적인 체류권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방문의 권리요, 교제의 권리이다. 사람들은 지구 땅덩어리를 공동으로 소유함에 의해 그런 권리를 갖는다.

<사례>

○○ 국가에 잠시 여행을 온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자연환경, 풍습, 제도 등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가 전혀 없던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보기
- ㄱ.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맞추어 외국인을 대우해야 한다.
 - ㄴ.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
 - ㄷ. 외국인은 영구 거주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 ㄹ. 외국인은 다른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

84)[15 ebs 수특 활용]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가 세계 평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있는 대로 골라.(1개~모두까지)

예비조항(일부)	* 상비군은 폐지하라. 말 좀 들어라! * 어떠한 독립 국가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확정조항(일부)	* 모든 국가의 시민적 체계는 공화정이어야 한다네~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야 한다네~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국한되어야 한다네~

- ① 지혜와 덕을 갖춘 왕이 다스리는 전제정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가?
- ③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평화 실현이 가능한가?
- ④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⑤ 영구적인 세계 평화 달성은 불가능한가?
- ⑥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85)[18 ebs 수특] 다음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다음 사상가가 주장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대해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평등으로 대신하며, 그리고 강요 대신 대화를, 분리 대신 통합을, 소외 대신 참여를 강조한다.

㉡ 학생 답안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비교하면, 소극적 평화는 ㉠ 전쟁, 테러, 폭행과 같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 빈곤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닌다. 반면에 ㉡ 적극적 평화는 문화적·구조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며, ㉣ 차별에서 벗어나 인권을 보장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는 모두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넓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86)[20 ebs 수특 활용,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있는 대로 골라.

-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접적인 폭력으로 향하는 인과적 흐름은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는 우리를 착취나 억압을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도록, 또는 그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도록 전도하고 가르치고 혼계하며 충동질하고 무디게 한다.

- ① 인간 존엄성의 보장을 위해 적극적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② 세계의 모든 전쟁이 종식될과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 ③ 정치·경제 분야에 존재하는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④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⑤ 인간 안보를 확장한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87)[21 ebs 수특] 골라!

갑: 모든 정치가들은 국가 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쟁한다. 이런 철칙은 국가들의 관계에 적용된다. 국제 관계는 무한한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른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는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약소국들은 강대국과 동맹을 통해 생존을 보장받으려 한다.
을: 가장 높은 수준의 입법적이고 도덕적인 힘은 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성은 절대적으로 권리의 차원에서 전쟁을 배격하고 의무의 차원에서 평화를 구축하게 한다.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 혹은 협정이 국가 간의 연합 혹은 연맹을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맹은 구성 국가들의 주권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영속적인 평화 상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갑은 국가 간 평화가 힘의 사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을은 국가 간의 평화 조약만으로 영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국제 사회에서 평화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도 보편적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88)[22 ebs 수특, 주관식]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모두 고르세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 체제여야 한다. 이것은 첫째로 한 사회의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리이고, 둘째는 모든 구성원이 유일하면서도 공통적인 입법에 시민으로서 종속된다는 제 원칙이며, 셋째는 모든 구성원이 국민으로서 평등하다는 법칙이다.

보기

- ㄱ. 평화란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의무인가?
- ㄴ. 법률은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가?
- ㄷ. 국민 국가를 해체하고 단일한 세계 정부를 건설해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
- ㄹ.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지닌 통치자가 다스리는 형태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89)[22 ebs 수특, 주관식] 모두 골라.

직접적 폭력은 사람, 사회, 세계의 공간들 속에서 정의된 것이며,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거나 내부 집단들에 의해 의도된 것이다. 구조적 폭력은 사람, 사회와 세계의 공간들에 조성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비의도적이다. 문화적 폭력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지 않게 한다.

보기

- ㄱ.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 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모두 의도된 형태의 폭력이다.
- ㄷ. 구조적 폭력은 정치와 경제에서 억압과 착취의 형태로 나타난다.
- ㄹ.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과 간접적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90[19 ebs 수특] 골라!

평화에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또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국가 안보 개념의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간접적 또는 구조적 폭력 및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 안보 개념의 평화입니다. 적극적 평화는 다시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 그리고 '문화적이고 적극적 평화'로 구분됩니다. 직접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나와 타자 간에 갖는 직접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공동체적이고 간접적인 평화입니다. 문화적이고 적극적 평화는 종교, 법, 사상 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나아가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성취해야 합니다.



보기

- ㄱ.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
- ㄴ. 억압과 착취의 사회 구조를 자유와 평등의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 ㄷ.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분열과 소외를 폭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 ㄹ.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91[18 ebs 수특] 다음 사상가의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조약이란 모든 적대 행위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인 휴전에 불과한 것이 되며, 따라서 '영구적'이란 단어를 덧붙이는 것조차 기만적인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 ① 평화란 모든 전쟁의 휴전 상태를 의미하는가?
- ② 평화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의 확보가 중요한가?
- ③ 국가 간의 세력 균형만으로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가?
- ④ 평화를 위해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하는가?
- ⑤ 평화적 방법으로 어떠한 독립 국가를 다른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6-4

해외원조(수특 15강)

zola 풀이!

92[20 ebs 수특]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다른 조건이 모두 다 같다면, 국가가 자국민을 돌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머지, 어떤 한 나라에서 부유한 한 쌍이 극장에 가느라 쓰는 돈이 다른 나라의 수많은 쌍들이 한 해 동안 먹고사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사정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달러당 최대 효율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는 효율성 개념을 가지고 추론하는 것은 우리 동포에 대해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효율의 크기로 볼 때 우리가 해외에 베풀 수 있는 선행의 양이 자국민을 돌볼 의무를 훨씬 압도한다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또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는 점은 추정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 ① 원조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②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④ 빈곤국에서 기아나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개인들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⑤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93[18 ebs 수특] 갑, 을, 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국가가 복지를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원조에도 적용된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 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 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병: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①	갑이 을에게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부를 평준화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갑이 병에게	개인에게 원조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병에게	절대 빈곤국에 대한 원조는 부유한 국가의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병이 갑에게	원조에 필요한 비용 마련은 개인의 자선에 달려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임을 경시하고 있다.

98)[21 ebs 수특, 주관식] 어떻게 푸는 지 아시죠? 있는 대로 골라요.

(가) 갑: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을: 소유물을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이전받았다면 우리는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달려 있다.
 병: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종족이나 국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나)

- 보기
- ㄱ. A: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의무임을 간과한다.
 - ㄴ. F: 해외 원조의 목적이 국가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함임을 간과한다.
 - ㄷ. B, D: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다.
 - ㄹ. C, E: 해외 원조는 세계 시민주의 입장에서 개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간과한다.

99)[21 ebs 수특] 골라.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윤리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갖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년 소득 중 일부인 그다지 많지 않은 금액만 우리가 기부한다면, 세계가 전 지구적 빈곤을 제거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학생	갑	을	병	정	무
원조의 대상에서 민주적 국가의 빈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		√	
원조는 인류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한다.	√		√		√
원조는 상호 경제력을 고려하지 말고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		√	√
원조를 이행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익과 자국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	√

100)[22 ebs 수특] 있는 대로 고르면?

(가) 갑: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을: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도덕적 신념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나)

- 보기
- ㄱ. A: 개인이나 단체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 체제의 변혁을 통해 빈부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ㄴ. B: 친소(親疏)의 기준에 따라 원조의 순위를 선정해야 하는가?
 - ㄷ. B: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얻는 행복감은 기부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 ㄹ. C: 부의 증진이 아니라 정치 문화의 개선이 원조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101)[22 ebs 수특] 옳지 않은 것은?

고통받는 사회는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종종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과학 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 ① 질서 정연한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다.
- ②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 ③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 ④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정치·사회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⑤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는 최선의 방법은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zola amazing 정답!!

- 1) 가, 르
- 2) ㉔
- 3) 1, 2, 3, 5
- ☞ Zola Guide 교과서에 나오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교과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식화하였는지(암기 또는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 4) ㉑
- 5) 나, 르
- 6) 다
- 7) 을
- ☞ Zola Guide 네 번째 관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감'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국어는 갖추어야 함. 국어 비문학-문장 공부를 수능 전까지 열심히 할 것.
- 8) 나, 다
- 9) 가, 나, 다
- 10) ㉑
- 11) 가, 나
- 12) 다, 르
- 13) ㉒
- 14) ㉑
- 15) 나, 르
- 16) ㉓
- 17) ㉔
- 18) ㉑, ㉔
- 19) ㉓, ㉔, ㉔
- 20) 가, 나, 다
- 21) 가, 나, 르
- 22) 나, 다, 르
- 23) 가, 다
- 24) 다, 르
- 25) ㉔
- 26) ㉔
- 27) 가, 나, 르, 다
- 28) 가, 다, 르
- 29) ㉒
- 30) ㉑
- ☞ Zola Guide 을 사상이를 데일러 혹은 생명 중심주의로 파악한 바나나들은 분명 수업 시간에 강조했다. 그래서 나가 기껏 공부하고는 바나나가 되는 거라고!
- 31) ㉔
- 32) ㉔
- 33) ㉓
- ☞ Zola Guide 정확히 하자면 '삶의 주체' 혹은 '삶의 주체인 동물'과 같은 식으로 표현해야 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건의 '수단'과 '자원'에 대한 표현을 구분하고 있는지는 것임.
- 34) ㉔
- ☞ Zola Guide 정답은 바나나임. 오답을 잘 확인할 것.
- 35) 가, 나, 르
- 36) ㉓
- 37) ㉓
- ☞ Zola Guide ㉓이 바나나 선지임. 나머지 선지를 잘 확인해 둘 것. 심층 생태주의임.
- 38) 나, 다, 르
- 39) 가, 다
- 40) ㉔
- 41) 가, 나
- ☞ Zola Guide ebs에 처음 등장한 '칸트'의 예술관 문제임.
- 42) ㉒
- 43) ㉔
- 44) ㉑
- 45) 나, 다, 르

- 46) 가, 나, 르
- 47) 가, 나
- 48) ㉔
- 49)

입장	너
거주함은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보살핌을 의미한다.	V
거주함의 본래적 근경은 집의 공급 부족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사방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존재이다.	V
현대인들은 본래적인 거주 공간으로서의 고향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고 있다.	V

- 50) 가, 나, 다
- 51) 나, 르
- 52) ㉒
- 53) ㉓
- 54) 순서대로 ㉔, ㉒
- 55) ㉔
- 56) 가, 나
- 57) 나, 다
- 58) ㉔
- 59) ㉔
- 60) 나, 다
- 61) ㉔
- ☞ Zola Guide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제시문의 논거(논리) 파악이 중요한 문제임. 탐구로 보자면 나름 고난도 독해일 듯
- 62) 1, 2, 3, 5
- 63) 나, 르
- 64) ㉑
- 65) 을
- 66) ㉒
- 67) 가, 나
- ☞ Zola Guide ≒하면 안 됨!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ok. 유일신을 긍정하는 입장이나 부정하는 입장 모두 인정해줘야 함.
- 68) 가, 나, 다
- 69) 나, 르
- 70) ㉒
- 71) 가, 다
- 72) 가, 나, 르
- ☞ Zola Guide 같은 하버마스, 혹은 칸트임.
- 73) 나, 다
- 74) ㉑
- ☞ Zola Guide 주제 번호 1-2 동양 윤리 지식이 필요함.
- 75) ㉓
- ☞ Zola Guide ㉔가 답이 안 되는 이유를 사상으로 설명 가능해야 함. 주제 번호 1-2 동양 윤리 지식 활용할 것.
- 76) ㉔
- 77) 갑
- 78) 가, 나, 르
- 79) ㉒
- 80) ㉒
- 81) ㉑
- 82) 나, 다, 르
- 83) 가, 다
- 84) 3, 4, 6
- 85) ㉔
- 86) ㉑, ㉓, ㉔
- 87) ㉑
- 88) 가, 나
- 89) 가, 다, 르

90) 가, 나, 르

91) ④

☛ Zola Guide 선지 ① 고른 B나나들, 제시문 다시 보라!

92) ④

93) ②

94) 가, 르

95) 가, 나, 르

96) ②

97) ①

98) 가, 다, 르

99) 병

100) 다, 르

101) ⑤